

파맵신, 암혈관생물학 분야 권위자 David Cheresch 박사를 과학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 키투르다 병용요법에서 TTAC-0001(타니비루맵)을 포함한 미래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기대

<2019-03-07> 항체신약 개발 전문 바이오기업 파맵신(대표이사 유진산)이 상장 이후 글로벌 시장의 진정한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일환으로 암혈관생물학 분야의 권위자인 David Cheresch 박사를 과학자문위원회 (Scientific Advisory Board, 이하 SAB) 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파맵신의 과학자문위원회(SAB)는 신약개발 및 임상개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는 이를 통해 동사의 파이프라인 개발 고도화 및 미래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자문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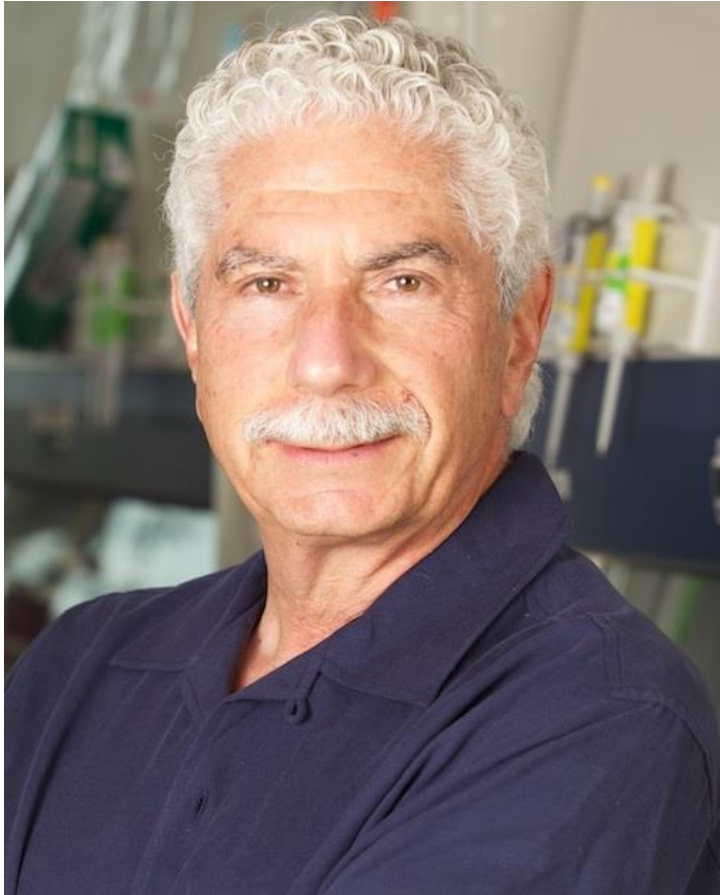
이번 임명은 기존 과학자문위원회(SAB) 수장이었던 홍완기 교수님의 별세로 생긴 빈자리를 채우게 될 예정이다. 홍완기 박사는 암 질환 연구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그 동안 파맵신의 파이프라인, 특히 임상단계에 있는 치료제에 대한 프로토콜 검토 및 연구방향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새로 임명된 David Cheresch 박사는 암혈관생물학 분야 세계 권위자로 암신생혈관분야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의 연구는 2015년 미 FDA가 승인한 유니텍신(Unituxin) 및 다양한 암종의 임상2상에서 혈관 인테그린(vascular integrin)인 $\alpha v \beta 3$ 를 표적함으로써 우수한 항신생혈관형성 억제능을 보여준 비탁신(Vitaxin) 등의 암 치료제 개발로 이어졌다.

유진산 대표이사는 “암신생혈관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의 참여로 파맵신의 파이프라인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키투르다(Keytruda) 병용요법에서 TTAC-0001(타니비루맵)을 포함한 미래의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기회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David Cheresch 박사의 자문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David Cheresch 박사는 “파맵신의 과학자문위원회(SAB)에 동참하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대안이 없는 암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법을 제공하기 위해 파맵신의 경영진 및 이사진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참고자료]



▶ 사진 설명: David Cheresh 박사